

성인간호학회 40년 발전사와 비전

김영경¹ · 김분한² · 정영미³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²,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³

The 40-year History and Vision of the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KSAN)

Kim, Yeong-Kyeong¹ · Kim, Boon-Han² · Jung, Young-Mi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KSAN) was founded in 1971. KSAN is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s knowledge base and specifically in the area of adult nursing. Other goals are knowledge dissemination, promotion of nursing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nurse researchers, nurse educators and nurse practitioners through forums fostering interactions. With more than 1,100 active members in 2011, this year we celebrate the 40th anniversary of KSAN by lookingback at our past, living our present, and pursuing the future. KSAN has six branches nationwide and is governed by an eleven board of directors. KSAN's conferences, held two or three times every year, offer members opportunities to share creative nursing ideas. Th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JAN), our bi-monthly Journal, provides innovative ideas in the field of adult nursing for our members through peer-reviewed articles. It was launched in 1989, listed in th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in 2011, and strives to publish the best articles. Each issue of the Journal examines current problems and trends in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occasion of our 40th anniversary, we pledge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our members, and contribute to expand and extend the knowledge base of adult nursing.

Key Words: Adult, Knowledge bases, Needs

서 론

간호인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로 성장해온 성인간호학회가 2011년인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땅에 근대 간호학문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지 100여년, 간호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기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기술 개발과 주요 정책수립을 위해 대한간호학회가 1970년에 창립되었고, 그 이듬해인 1971년에 성인간호학회가 창립되었다. 성인간호학회는 2011년 초대 회장인 고 전산초 박사께서 심혈을 기울여 초석을 이루면서 당초의 규모는 작았으

나 현재는 회원 수 1,103명(2011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6개의 지역지회를 가진 당당한 학회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제 창립 40주년이라는 성인중년기를 맞아 역사적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성인간호학회는 성인간호 관련 교육연구와 실무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쉽없이 달려왔으며,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회원 수 증가와 함께 학회 내실화와 학회지의 질적 성장을 통해 한국간호학문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간호학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올해 '성인간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및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40년간의 양적

주요어: 성인, 요구, 지식기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ung, Young-Mi,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eong-gu, Daegu 706-060, Korea.
Tel: 82-53-770-2284, Fax: 82-53-770-2286, E-mail: youngmi@dhu.ac.kr

- 본 논문은 성인간호학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Research Grant.

투고일 2011년 10월 12일 / 수정일 2011년 10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16일

및 질적 성장을 되돌아보고 이를 발판삼아 미래 100년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 제2의 도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성인간호학회는 한국간호과학회 분과학회 중 학회규모와 회원 수 면에서 가장 크고 국제화 노력의 성과로 성인간호학회지가 2011년에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CINAHL (th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에 등재됨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간호발전의 선두주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인간호학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학회가 부족한 면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성인간호학회는 21세기에 걸맞은 간호학문의 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가입을 통한 학회의 발전을 모색해오고 있으나 지역별 지회활동 부진과 학회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활동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간호학회 회원 중 회원가입을 위한 분과학회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성인간호학회가 어떻게 변모하여 간호대상자와 회원의 변화무쌍한 간호 요구도에 적절히 발맞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학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지라도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강한 도전정신으로 학회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와 비전에 대한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신뢰가 있는 발전하는 학회로 성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학회가 추진해온 사업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간호학회의 40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추진사업을 점검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성인간호학회가 50주년, 혹은 100주년을 맞이해서도 여전히 회원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인받는 학회로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본 론

1. 성인간호학회의 과거

1) 학회설립 및 역대 회장

성인간호학회의 40년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인간

호학회는 1971년 6월 25일에 대한간호학회의 산하학회인 내외과 분과학회로 창립되어(초대회장 전산초 박사) 성인간호학회의 학술적 발전과 국내외 타 간호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성인간호의 이론과 실무의 향상과 함께 간호학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왔다. 1979년 2월에 성인간호학 분과학회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1982년 3월에는 성인간호학 분과학회에서 기초간호학회가 독립을 하였다. 또한 1987년 3월, 제 16회 대한간호학회 정기총회에서 분과학회라는 명칭을 삭제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성인간호학회로 명칭이 확정되었으며, 2001년 8월과 2011년 6월에는 성인간호학회 창립 30주년과 40주년 기념 행사를 각각 치루며, 명실공히 오늘날 한국간호과학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성인간호학회는 발전하는 학회의 이미지를 담기 위하여 2000년 10월 성인간호학회 로고를 제작하고 학회기에 로고를 삽입하였다. 로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틀은 ‘등불의 여인’ 나이팅게일을 상징하며, 붉은 색의 불꽃은 건강을 의미하고, 이는 파란색의 몸체인 지구를 받치는 형태를 담고 있다. 로고의 색상인 붉은색과 파란색은 태극의 음양조화를 상징하며, 삶의 근원이 우주공간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성숙한 인간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성인간호학회의 목표의식을 나타낸다.

성인간호학회를 이끌어간 역대 회장으로 초대회장은 전산초 교수(연세대, 1971. 06~1974. 05) 2대 모경빈 교수(이화여대, 1974. 06~1977. 05), 3대 한윤복 교수(가톨릭대, 1977. 06~1980. 01), 4대 김광주 교수(경희대, 1980. 02~1982. 03), 5대 신경자 교수(고려대, 1982. 04~1984. 03), 6대 이은옥 교수(서울대, 1984. 04~1986. 02), 7대 김조자 교수(연세대, 1986. 03~1988. 01), 8대 최영희 교수(이화여대, 1988. 02~1989. 12), 9대 이정희 교수(중앙대, 1990. 01~1991. 12), 10대 김주희 교수(한양대, 1992. 01~1993. 12), 11대 노유자 교수(가톨릭대, 1994. 01~1995. 12), 12대 이향련 교수(경희대, 1996. 01~1997. 12), 13대 이숙자 교수(고려대, 1998. 01~1999. 12), 14대 서문자 교수(서울대, 2000. 01~2001. 12), 15대 김소선 교수(연세대, 2002. 01~2003. 12), 16대 신경림 교수(이화여대, 2004. 01~2005. 12), 17대 서순림 교수(경북대, 2006. 01~2007. 12), 18대 최경숙 교수(중앙대, 2008. 01~2009. 12), 19대 김영경 교수(부산가톨릭대, 2010. 01~현재)로 총 19명의 역대회장과 임원들이 혼신의 힘을 쏟아 학회발전을 위해 일해 오으로써 오늘날의 학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2) 학회 연혁

학회의 연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성인간호학회 발전을 위한 준비기로 학회 창립과 학회지 발간 등으로 조직의 틀을 이루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학회설립 이후 1984년 12월에 성인간호 논문요약집이 발간됨으로써 오늘날의 성인간호학회지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89년 3월에 성인간호학회지 제 1권(창간호)이 발간되었다(Table 1).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성인간호학회 발전기로 두드러진 특징은 성인간호학회 회원 수 및 성인간호학회지 논문 편 수 증가, 지역별 학회지회 구성 등을 꼽을 수 있다. 1992년에 성인간호학회지는 연 2회(3월, 9월) 발간되었으며, 1992년 7월 학회 처음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노인/가정간호)을 하와이 간호대학 및 의료보건시설에서 실시하였다. 1997년 3월에는 회원 수 및 구독자 증가로 학회지 500부를 인쇄하였으며, 논문심사위원을 서울시내 소재 간호학과 교수로 국한하였던 것을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전국의 간호학과 교수로 확대하였다. 1997년 10월에는 학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전국 성인간호학 교육과정 검토를 위하여 3, 4년제 101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으며, 성인간호학회지를 연 3회(3월, 7월, 12월) 발간하였다. 1999년에는 성인간호학회지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였으며, 그 해 11월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을 거쳐 12월에 성인간호학 학습목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회원 관리와 조직적인 학회활동의 필요성 증가로 2000년 6월에는 전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서울을 제외한 7개 지역이사(서울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제주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강원권)를 선임하고 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http://adultnursing.web.riss4u.net>), 성인간호학회 로고 제정 및 학회기에 성인간호학회 로고를 삽입하였고, 영문학회명을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으로, 학회지 영문명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으로 개정하였으며, 2001년 4월에는 성인간호학회 영문 약자 명칭을 J Korean Acad Adult Nurs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0년 11월에는 대한간호협회 출판부와 공동으로 국가시험문제 개정작업 후 성인간호학 문제집을 발간하였다. 꾸준한 질적 성장을 보인 성인간호학회지는 2001년 12월에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학술지 출간 지원 대상 학회로도

선정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성인간호학회 회원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위해 박사논문 연구지원금 지급을 시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는 성인간호학회지가 한국의 학논문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특별호를 포함하여 성인간호학회지가 연 5회 발간되었고, 그 해 특별호의 주제는 ‘노인’이었다. 2006년도는 ‘만성건강’, 2007년도는 ‘여성의 건강문제’, 2008년도는 ‘건강증진’을 주제로 특별호를 발간하였다. 2006년 1월부터는 처음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성인간호학회 회장이 선출되어 성인간호학회 활동의 전국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토대를 구축했다. 2007년 1월에는 온라인 논문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부터는 증가하는 논문투고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제별 특별호 발간을 중단하고 성인간호학회지를 연 6회 증편 발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고, 2009년부터 모든 논문은 온라인으로만 투고하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약자 명칭을 Korean Acad Adult Nurs로 개정하였고 학회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성인간호학회 온라인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2010년 4월에는 학회지 발전을 위해 심사위원과 편집위원 외에도 통계 자문위원 및 영문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1971년 성인간호학회 창립총회 당시 비교적 소규모 회원 수에 비해 볼 때, 2009년 11월에는 회원 수 1,000명을 넘어 양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010년대는 성인간호학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기로서 성인간호학회가 재발전할 수 있는 제2의 도약기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4월에는 논문투고부터 출간까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심사편중 위험을 줄이고자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심사에 3심제를 도입하였으며, 논문심사료를 신설하였다. 또한 학회 및 학회지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학회명은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KSAN)으로, 학회지명은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JAN)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국문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http://www.ana.or.kr>),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영문 홈페이지를 국문 홈페이지에서 링크되도록 새롭게 구축하였다(Figure 1). 또한 2011년 4월에는 성인간호학회지가 CINAHL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 9월에는 SCOPUS 등재를 위한 준비를 마침으로써 성인간호학회지에 수록된 연구가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실무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

Table 1. The History of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KSAN)

일시	내 용
1971. 06	대한간호학회 내외과 간호학 분과학회로 발기총회 개최
1979. 02	성인간호학 분과학회로 명칭 개정
1982. 03	성인간호학 분과학회에서 기초간호학 분과학회가 독립
1984. 12	성인간호 논문요약집 발간, 대한간호 지면보수교육 실시
1987. 03	성인간호학회로 분과 명칭 삭제
1989. 03	성인간호학회지 제 1권 (창간호) 발간
1992. 07	“노인/가정간호”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장소: 하와이 간호대학 및 의료보건의설
1992. 09	성인간호학회지 연 2회 (3월, 9월) 발간
1995. 12	학회지 400부 발간, 총 회원 294명
1997. 03	학회지 500부 인쇄 논문심사는 서울시내 소재 학교의 교수에게 국한하였던 것을 전공분야 고려하여 전국의 교수로 확대
1997. 10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학회지 600부 인쇄
1997. 12	성인간호학회지 연 3회 (3월, 7월, 12월) 발간 전국 성인간호학 교육과정 검토를 위하여 101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시행
1998. 04	성인간호학회 영문명칭을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KASAN)으로 변경
1999. 11	학습목표 개정 워크샵
1999. 12	성인간호학회지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발간 성인간호학 학습목표개발
2000. 03	뉴스레터 발간 (연 4회 학술지 뒷면에 게재)
2000. 06	7개 지역이사선임 및 지회활성화 (서울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제주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강원권)
2000. 10	성인간호학회 로고 제정 및 학회기에 성인간호학회 로고삽입 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 개설 (http://adultnursing.web.riss4u.net) 영문학회명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00. 11	성인간호학 국가시험문제 개정작업 후 문제집 발간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1. 03	평생회원증 발급, 학회지 CD-ROM 제작
2001. 04	성인간호학회 영문 약자 명칭 개정 J Korean Acad Adult Nurs
2001. 08	성인간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2001. 12	성인간호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지 출간 지원비 대상 학회로 선정

Table 1. The History of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KSAN) (Continued)

일시	내 용
2002. 08	회원 600명 확보되어 학회지 620부 출판
2002. 12	박사논문 연구지원금 지급 시행
2003. 09	회원 630명 확보되어 학회지 650부 출판 성인간호학회지 KoreaMed 등재
2004. 07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서울과 지방이 교차하여 회장 역임 의결
2004. 12	성인간호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
2005. 12	성인간호학회지 연 5회 (3월, 6월, 8월, 9월, 12월) 발간 주제별 특별호 발간 ('노인')
2005. 09	성인간호학회지 영문학회지 발간에 대비하여 영문심사위원 선정
2006. 01	지역에서 첫 성인간호학회 회장 선출
2006. 03.	회원 750명 확보되어 학회지 750부 출판
2006. 10	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 개편 및 학술지 온라인 사업 실시
2007. 01	홈페이지 개편 및 온라인 논문투고 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2008. 12	성인간호학회지 연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간
2008. 12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발행사업 지원 선정 2009년부터 모든 논문투고는 온라인으로 하기로 함
2009. 03	성인간호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 규정 신설
2009. 06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약자 명칭 개정 Korean Acad Adult Nurs 성인간호학회 온라인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 (연 2회 발간)
2009. 10	성인간호학회지 통계자문위원 및 영문자문위원 위촉
2009. 11	회원 1,004명 확보
2010. 04	학회지 논문심사 3심제 도입, 논문심사료 신설
2010. 12	영문학회 및 학회지명 통일 학회명: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학회지명: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1. 04	성인간호학회지 CINAHL 등재 영문홈페이지 완성: http://www.ana.or.kr/eng/index.html
2011. 06	성인간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학술행사

성인간호학회는 성인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술행사를 1984년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학술집담회 형태로 학회 회원의 박사논문발표나 워크숍 형태로 진행해오다가 1989년부터 정기적으로 연 2~3회 학술대회를 개최해왔



Figure 1. The Korean and English Homepage of KSAN.

며(Table 2), 일부는 한국간호과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주제는 크게 성인간호교육, 간호연구방법, 건강증진, 간호중재 및 학회지 게재논문의 질 향상 등 성인간호 이론, 실무 및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성인간호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의 증진을 도모해왔다. 특히 2001년 8월 22~23일에는 용인 대한간호협회 연수원에서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주제 I; 간호사 국가고시의 전망과 대책, 주제 II; 우리글 논문 바로쓰기)와 2011년 6월 2~3일에는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학회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주제 I; 성인간호 실무역량 강화전략, 주제 II; 임상현황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방안 모색)를 개최함으로써 성인간호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전략을 위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다(Figure 2). 특히 이번 40주년 행사에는 세계적인 간호이론가인 혜숙 수지 김 박사가 지식기반 실무 주제로 이론을 간호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식을 통합하고 실무를 위한 다양한 인지적 요구 사항은 무엇이며, 실무에 융합하는 방법 등을 강연하였다. 또한 전국의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과 실무의 통합전략과 성인간호학 교육목표와 국가고시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인구변화와 사회요구에 따른 성인간호학 교과과정 개편 및 국가고시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 성인간호학회의 현재

1) 회원 현황

1971년 학회가 창립된 초기에는 회원 수가 기록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지만 주로 성인간호학 관련 교수가 주축이 되어 학회를 설립하였으므로 그 수는 수십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97년에는 443명, 30주년이 되는 2001년에는 532명, 2006년 846명, 2010년 1,079명, 2011년 1,103명으로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이는 3,400여명의 회원 수를 가진 한국간호과학회 분과학회 회원의 거의 30% 이상으로서 회원 수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간호학과와 대폭적인 증·신설, 학회의 외형적 성장발전과 학회지의 국제 DB 등재 등을 통해 성인간호학회는 앞으로도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회는 조직적인 회원 관리 및 회원의 다양한 요구도에 발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어 2011년에는 회원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었으며, 학회 본회와 지역별 지회 간 학술 교류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학회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관계



Figure 2. Nursing Conference to celebrate 40th Anniversary.

Table 2. Nursing Conference of KSN (1989~2011)

일시		학술대회 내용
1989	4.28 8.8~9	준계: 성인 환자의 무력감 (powerlessness)에 관한 간호중재 하계: 학술논문발표 및 국가고시문제 심의
1990	5.29 8.17~18	준계: 성인간호학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하계: 성인간호학 교과과정 및 실습과 국가고시 영역별 분류체계
1991	5.24 7.12~13	준계: 노인의 정신의학, 노화이론과 간호 하계: 성인간호학 국가고시 분야별 문제 수정
1992	6.5 7.7~8	준계: 성인, 노인의 변환기 (transition)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특징 하계: 간호개념 분석과 임상적용
1993	4.20 8.26~28 10.28	준계: 간호전문화와 교육 패러다임 하계: 국가고시문제 심사 추계: 박사학위 논문 발표 및 자습서 개정 출판 평가회
1994	4.22 9.18 11.24	준계: 간호교육개혁 하계: 질적 간호연구방법론 (I) 추계: 문화기술적 접근방법의 이해
1995	4.20 6.23 11.23	준계: 간호전문화를 위한 간호교육 하계: 질적간호연구방법론 (II) 추계: 임상간호전문가의 현 실태와 전망
1996	5.3 7.5 11.17	준계: 간호영역 확장을 위한 정책방향 하계: 간호중재의 재조명 추계: 성인간호실무를 위한 간호정보의 적용
1997	5.2 7.22~23 12.8	준계: 미래사회와 caring 하계: 성인간호학 교육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추계: 생명윤리와 간호
1998	4.24 7.28 12.2	준계: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 I - 한국적 대체요법 하계: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비한 성인간호학 교수 전략탐색 추계: 건강증진의 성인간호학적 접근
1999	6.4 8.20 11.30	준계: 다학제적 접근으로 본 여성건강 하계: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워크숍 추계: 간호정보 표준화 및 Data Base의 성인간호학 적용
2000	5.19 6.22~23 12.1	준계: 간호와 정보화 사회 하계: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문제해결중심 문항개발 워크숍 추계: 성인간호학에서의 간호능력
2001	4.27 8.22~23 12.17	준계: 연구활동 분류체계 하계: 30주년기념 학술대회 - 성인간호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우리글 논문 바로 쓰기 추계: 일상생활기술적 간호연구
2002	5.10 11.22	준계: 간호의 전문화 방향 추계: 간호연구의 발전방향 - 연구비 수혜전략
2003	4.25 7.4 12.19	준계: 취약계층을 위한 간호전략 하계: 만성질환자 관리 추계: 성인간호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

Table 2. Nursing Conference of KSAN (1989~2011) (Continued)

일시		학술대회 내용
2004	5.21 7.5 12.17	준계: Evidence based nursing의 활용 - 교육, 연구, 실무 하계: 국가고시대비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추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현주소와 정책방향
2005	5.13 12.16	준계: 유전자와 건강 동계: 건강증진의 선구자 - 금연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2006	5.17 12.21	준계: 노인약물에 대한 최신 지견 동계: 간호사 국가고시의 전망과 대책
2007	5.11 12.20	준계: e-만성질환자 관리 동계: 간호연구설계와 통계분석
2008	6.10 12.16	준계: 간호연구방법론 - 측정도구 동계: 성인간호학회지의 국제학술지 등재전략
2009	6.8 12.11	준계: 이상적인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동계: 간호연구방법론
2010	5.27 12.10	준계: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다학제적 접근 동계: 학회지 게재논문의 질 향상
2011	6.2~3	준계: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성인간호 실무역량 강화전략 임상현황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방안 모색

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조직 및 사업현황

성인간호학회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교육이사, 법제이사 및 지역이사를 두고 있으며,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이사가 위원장인 6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학술연구활동 및 교류, 성인간호교육, 학회지 발간 및 출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출판위원회, 학술위원회, 법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학회 장단기 발전계획, 주요 정책 기획, 특별사업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학회재정 확보 및 증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홍보위원회는 홈페이지 수정 및 관리, 대외매체 및 대외기관에 학회 홍보,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및 기타 학회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 출판위원회는 연간 6회 학회지 발행, 학회지 질 관리(논문 심사 질 관리, 학회지 게재논문의 활용 활성화), 타 학회와의 출판

관련 협조활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 평가작업 및 학술지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술위원회는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우수 연구지원사업 홍보 및 선정, 연구기금확보 및 연구활성화 업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신청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제위원회는 회칙 및 제 규정 검토, 윤리위원회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와 문제집 개정, 성인간호학 관련 출판물 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으로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윤리규정 제정 및 개정 업무,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인간호학회의 미래

1) 성인간호학회의 발전과제

성인간호학회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경쟁력 있는 학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며 이를 학회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마련하는 각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현재 성인간호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6개 지역별 지회를 구성하였지만 본 학회와는 달리 지역별 학회활동이 부진한 면이 있으며, 학회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및 활동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또한 한정된 간호계 인원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분과학회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위한 영문논문이 요구되고 있으나 성인간호학회에 투고되는 논문은 거의 국문이고 영문 논문 투고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영문 논문 투고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국외 연구자의 논문 투고 증가 방안을 모색해서 학회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인간호학회는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학회 중 규모와 회원 수 면에서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학회지 국제화 노력의 성과로 2011년 CINAHL에 등재되었고, 현재는 SCOPUS 등재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을 완료하여 타 학술 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교류 및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확보에 대한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학회 발전을 위한 자금확보의 일 방안으로 한국간호과학회에서 회원 학회에 배분하는 회원 수 대비 회비의 지급비율을 40%에서 50%로 10% 상향시켰고, 주요 학회 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보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교재 및 부교재 제작, 학회지 DB의 상업적 활용 등을 통해 매해 일정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였고,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 수를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성인간호학회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회운영 면에서 학회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학회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인간호학회는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학회로 한국간호과학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지만 성인간호학문의 정체성 확립과 학회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 학문의 다양화와 조직적인 학회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과총 가입 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2012년부터는 공동 관심사를 지닌 학회 간 공동연구활동과 주요 국내의 간호학회와의 적극적인 국제 교류와 공조를 통해 학문 간 융합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독자적인 학회로서 격상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회원관리 측면에서 회원의 질관리를 위해 학회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성인간호학회는 회원가입만 유도할 뿐 이미 가입한 회원의 학회활동을 위한 지원방안과 회원 간 상호 교류가 미비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요구도가 무엇인지, 활동이 부진한 회원들의 학회 참여를 위한 동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원부분에서 학회연구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현실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재원 마련을 위해 학회차원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회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TFT 팀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창의적인 간호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마련을 위한 성인간호교육 관련 출판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대회 시 찬조업체와 학회지 광고수주 등을 개발하고 현재 마련된 기금은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재정 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학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뿐 아니라 SCI급 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학회지 도약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1차적으로는 CINAHL에 이미 등재된 바 있으며, 앞으로는 SCOPUS와 MEDLINE과 같은 국제 유명학술 DB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논문심사 질 관리를 위해 출판위원 및 심사위원의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며, 학회지 인용지수 향상을 위해 영문 논문 투고를 격려하고, 학술대회 때 발표된 우수 논문이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국외 심사위원을 초빙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론과 실무를 위한 연계와 국내외 학술교류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이론중심의 학술대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앞으로는 근거중심 실무연구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학술대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선정과 국제 학술대회 개최, 회원의 연구능력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춘계학술대회 때부터 우수 포스터상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신진과학자를 지원하는 우수연구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원

금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대회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발표뿐 아니라 구두발표를 함께 진행해야 하며, 회원의 학술대회 참여 독려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때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지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6개 권역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별 학회활동을 점검하여 지역이사의 정기적 모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지회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각 지역지회 임원이 실제로 활동하는 지 파악하고 학술대회나 정기총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본 학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지회활동 여부를 파악하고 회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지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학회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역의 지회활동의 활성화와 제반 여건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윤번제로 맡게 될 지역 임원진의 본 학회운영에 대한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모처럼 조성된 지역 활성화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일곱째, 성인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의 성인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성인간호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간호계는 간호사부족으로 간호학과 정원증가와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로 학회 차원의 표준화된 성인간호학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회는 발빠르게 대처하여 각 간호교육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 질병 유병률 추이와 인구 구성과 임상간호현장의 변화에 따라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성인간호학 국가고시 문항개발과 수정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학회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홍보용 리플릿과 관련기관 및 개인에게 온라인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대외매체 및 기관에 조직적으로 학회를 홍보하고, 정회원 가입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입학하는 대학원생 및 신규 간호사의 회

원가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결 론

지금까지 성인간호학회의 설립배경과 연혁, 학술행사, 현재의 회원 및 사업현황,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살펴봤다. 2011년 현재, 성인간호학회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으며, 창립 40주년을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회 임원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립 당시 소수의 회원으로 출발한 성인간호학회가 40년 만에 천여 명이 넘는 회원증가와 조직역량강화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성인간호학회 회원의 한결같은 신뢰에 힘입은 바 크지만, 무엇보다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마다 학회혁신을 통한 내실화와 조직발전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쉬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였다.

학회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분석과 체질개선 등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확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원들은 학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으로 볼 때 성장발달기에서 중년기로 접어든 성인간호학회는 보다 더 성숙하고 간호학문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여 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는 대규모 학회로서 조직경영을 개선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회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간호학회 임원진 및 회원들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와 더불어 때로는 냉철한 비판을 통해 성인간호학회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간호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